

계층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외식비의 빈곤선 설정
-1993년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Setting Poverty Line of Food Away from Home by Comparing of
Consumption Patterns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With a focus on the 1993 Urban Wage Earner's Family-

명지대학교 생활과학과
강사 류정순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혜련

Dept. of Human Ecology, Myungji Univ.
Instructor : Jeong Soon, Ryu
Dept. of Food & Nutrition, Myungji Univ.
Prof. : Hae Ryun,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Food away from home consumption pattern difference among 20 different social strata has been observed in order to make judgement how much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2 tiered poverty line. It was found that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in the minimum living cost. And as social class rose expenditure amount an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food expenditure increased and income elasticity and marginal propensity decrease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expenditure increased up to middle class, however from 14/20 and up strata, decreased as social strata rose.

For 4 members city wage earner family, suggested monthly poverty line is

₩16,977 and suggested monthly relative poverty line is ₩60,651.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이제까지 식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식품의 필수재적 성격 때문에 총소비지출에 대한 식품비의 비율인 앵겔계수는 생활수준의 측정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30년(통계청, 1993)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 외식비는 1964년 70원 이었으나 70년 1,260원으로 천원대에 진입했으며 86년에는 11,620원으로 만원을 넘어섰다. 그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87년에는 51.2%, 89년에는 62.9%에 이르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증가율은 20%를 넘어 1993년에는 75,981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외식비의 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서 1995년 2/4분기의 외식비는 총소비지출의 10%, 총식품비지출의 31.6%에 이르렀다(통계청, 1995).

이렇듯 급격히 증가하는 외식비를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지출로 간주하고 빈곤선(poverty line) 설정을 위한 최저식품비 산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80년대까지는 최저생계비 산출에 외식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4인가족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4)이 21,997원,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4)이 20,000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이 35,200원의 외식비를 최저식품비에 포함시켰으나 안병근(1991)은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가치관과 각 연구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태조사 자료에 따라서 포함여부와 액수의 차이가 크다. 특히 반물량 방식의 빈곤선 산출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가 식품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외식비의 포함여부에 따라 빈곤선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논문은 식품영양학 분야와 소비자학 분야의 공동연구 과제인 최저생계비 산출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최저식품비 산출에 외식비의 포함여부와 만약 포함시킨다면 얼마인지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빈곤선 설정은 주로 마켓바스켓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필수품의 선정 및 각 필수품의 양과 질의 결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통계해석 방식의 빈곤선 설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총론적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개별 품목에 대한 계층별 소비 패턴을 이용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품목별로 통계치를 적용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외식비에 대하여 빈곤경계선법, 소비함수법, 앵겔계수법, 순수상대빈곤법과 유사상대빈곤법으로 빈곤선을 도출하여 보고, 각각의 방법으로 산출된 빈곤선을 마켓바스켓 방법으로 산출된 각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후 가장 타당한 액수의 외식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본래의 연구목적 뿐만 아니라 외식소비 경향의 예측, 소비자교육과 식생활 관리, 사회계층 연구,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및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각 외식업체의 수요예측, 제품기획,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1) 외식비는 최저식품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1) 계층별 외식소비 패턴은 어떠한가?
- 3) 외식비의 빈곤선은 얼마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외식 소비와 빈곤선 산출 이론

전통신고전파이론에 의하면 소비는 경제능력,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가계의 경제능력은 소득, 소비와 재산으로 측정 가능하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소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소득의 산출에는 주로 현금소득 만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현물소득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 귀속임대료(imputed rent) 등이 제외된다. 또한 소득(특히 재산소득)은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재산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만으로는 경제능력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Cutler and Katz, 1992). 또한 소득과 재산의 이자율을 합한 개념으로 경제능력을 가늠할 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신빙성있는 재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가계는 저축이나 차용의 방법으로 재산이나 과거의 생활상태와 미래의 소득 흐름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현재소득을 재배분하기 때문에 현재소득보다는 생애주기 전체의 소득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소비가 더 경제능력을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Ghez & Becker, 1975).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총소비를 항상 소득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경제능력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외식은 가정식사 대용외식과 쾌락적·사교적 소비로서의 외식으로 크게 대별된다. 가정식사 대용외식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여타 식품비와 같은 성격을 띠므로 엔겔계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쾌락적·사교적 소비로서의 외식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식품비와는 달리 케인즈(Keynes)의 소비함수 이론 및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분석이 적합하다. 통계해석 방식의 빈곤선은 박탈지수법, 소비함수법, 알렌-보울리(Allen-Bowley)법, 순수상대빈곤과 유사상대빈곤방식 이론을 적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1) 외식소비관련 이론

전통신고전파 이론에 의하면 식비지출은 경제능력 과 모든 시장가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이 일정하다면 식비 지출은 아래의 식과 같은 총소비지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C_o = f(Y) \dots\dots\dots (1)$$

C_o: 외식비

Y: 가계총소비지출(항상소득) 혹은 소비계층

엔겔(Engel)의 제1법칙에 의하면 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총소비에 대한 식품비 지출비율은 감소한다(Douglas, 1980, p41). 소비함수 이론에 의하면 특정 품목의 소비는 경제능력 즉, 총소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 외식은 여타 식품과 달리 양면성을 가지는데, 가정식사 대용외식은 총소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쾌락적·사교적 소비로서 외식은 총소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 즉, 소비계층에 따른 외식소비의 패턴은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으로 파악해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_o = b + a Y + u \dots\dots\dots (2)$$

$$\ln C_o = b + a' \ln Y + v \dots\dots\dots (3)$$

a는 외식비의 한계소비성향

a'는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2)식은 선형회귀 방정식으로서 알렌과 보울리(Allen & Bowley, 1942)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외식비 지출증가분의 비율로서 소득이 1단위 상승했을 때 외식비 지출은 몇 단위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며 회귀계수 a로 파악된다.

(3)식은 (2)식을 양대수화한 함수로서 후타카(Houthakker, 1957) 등에 의하여 사용되었는데 회귀계수 a'가 소득탄력성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하면 평균 소득탄력성은 산출할 수 있으나 각 계층별 소득탄력성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계층이 한 단계

상승할 때 소득의 변화 비율에 따른 외식비의 소비 지출의 변화비율을 아래의 식 (4)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text{Elasticity} = \frac{\Delta C_0}{C_0} / \frac{\Delta Y}{Y} = \frac{\Delta C_0}{\Delta Y} * \frac{Y}{C_0} \dots\dots\dots (4)$$

여기서 탄력성이 0보다 적으면 열등재, 탄력성이 0에서 1사이면 정상재, 1보다 크면 사치재로 분류되며 가계소비행위에 있어서는 비목별 건요도를 측정하는 자료가 된다. 소득탄력성은 소비자의 열망과 실제 성취 정도 간의 차이로서 성취되지 않은 욕구가 간절할수록 소득탄력성이 높고 따라서 증가된 소득을 그 비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Douglas, 1980, p44, 양세정, 1991에서 재인용).

2) 빈곤선 설정관련이론

Townsend(1974, 35-36)는 소득을 독립변수로 삼고 박탈점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소득에 따른 박탈점수를 그래프로 그려 소득이 어느 수준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박탈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 즉, 박탈경계선(Poverty thneshold)이 생기는 것을 입증하였다. 타운센드의 박탈경계선 방식을 원용하여 계층을 독립변수로 삼고 계층별 외식비의 총지출액, 총소비에 대한 비율, 총식품비에 대한 비율, 한계 소비성향 및 소득탄력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계층상승에 따른 외식비의 지출은 소비계층의 합수로 위의 식(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외식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을 빈곤경계선으로 삼을 수 있다.

케인즈의 단기적 성격의 소비함수는 소득 증가와 더불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가정과 더불어 소득이 없을 때에도 최저한의 소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함수의 성격을 이용하여 소비함수의 절편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다(장현준, 1986). 또한 알렌-보울리(1942)는 (2)의 소비함수식에서 Y축의 절편 값이 0보다 작은 품목을 사치재로 분류하고 사치재를 모두 더한 값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소비함수를 구한 후, 새로운 함수의 Y축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간주하였다.

Miller & Roby(1970)에 의하여 제안된 순수상대빈곤은 계층별 소득분배상의 하위 일정비율을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순수상대빈곤선은 소득순으로 하위 1/10, 2/10, 4/10이다.

폭스(Fuchs, 1967)에 의하여 제안된 유사상대빈곤은 소득이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에 못 미치는 가계를 빈곤한 것으로 정의한다. 타운센드는 평균소득의 80%, 푸쉬는 중위소득의 1/2,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선을 평균소득의 1/3로 제안했다.

2. 선행연구

가계소비에 관한 연구 중에서 외식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강이주(1988)는 1964년부터 1986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 시계열자료를 재구성하여 식품 중 선택적 소비지출 품목들의 소비패턴을 살펴 보았다. 결과 식품비 중에서 대표적인 선택재인 외식비와 가공식품을 더한 값을 식품비로 나눈 값인 총식품비에 대한 식품선택제의 비율은 1964년 3.43%에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에는 13.27%에 이르렀다. 또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은 1970년에서 1983년 사이에 1970-1972년과 1975-1976년의 6년 동안은 사치재적 성격이 나타났으며 1977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두드러져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다.

김미향과 한재숙(1988)의 1975-1985년 식료품 소비구조분석에 의하면 총식품비 중 외식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는 외식이 소득탄력성 1.173으로 선택재적 성격을 보였으나 1984년 이후 부터 필수재로 바뀌었으며 1985년에는 0.850이었다.

배연수, 한재숙과 김정숙(1990)은 소비함수의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가계지출비목에 따라 적절한 함수 형태를 살펴 보았는데, 외식비는 직선형, 반대수형, 양대수형과 대수역수형의 4가지 방정식 형태가 모두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양대수형의 R-square 값

이 특히 높게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수형태에 따른 탄력성의 비교를 했는데 외식비의 경우는 직선형이 양대수형에 비해 0.2정도 높았으며 반대수형의 탄력성계수는 결정계수가 너무 낮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1992)은 1970년에서 198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는데 외식비의 소비함수는 $Y = 0.048X - 488,050$ 으로 추정되었다.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은 은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높아졌으며 가계단위와 개별 소비자단위의 분석결과는 둘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70년대와 80년대에 있어서 모두 탄력적이어서 사치재였는데 소득탄력성이 평균 2가 넘었으며 70년대 보다 80년대에 더 높아졌다.

양세정(1991)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총소비지출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은 70년 0.9%에서 80년 1.8%, 85년 3.1%로 차츰 늘어났으나 87년에는 급격히 성장하여 4.6%에 이르렀으며 90년에는 7.0%를 차지하여 5년 사이에 2배이상 성장하였다.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은 1985년에는 1.3을 넘어 선택재로 분류되었으나 1990년에는 1과 1.3사이로 낮아져 준선택재로 분류되었다.

국은경제연구소(1993)는 89-91년의 한일 양국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행태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외식비는 일본의 경우 75년 총소비의 3.3%에서 86년에는 4.0%로 증가했으나 그후 90년까지 변화가 없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비불평등도는 일본보다 1.8-1.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89년 0.1799에서 91년 0.1589로 점차 낮아진다.

국은경제연구소(1993)는 미일독과 한국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격차를 변동계수와 준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령간 외식비의 변동계수는 15.8로서 소비지출격차인 20.2보다 작으나 12개 비목 중 주류 다음으로 작으며 식품비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 박과 천(Mok, Park & Chern, 1995)의 아시아계 미국인 가계의 식품소비 패턴 연구에 의하면 가정식 사비와 외식비에 있어서 시간제약의 영향은 미미하나 소득과 가족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다드(Goddard, 1983)의 캐나다 가계의 가정식사와 외식수요 분석에 의하면 외식은 가정식사보다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더 크며 현재소득보다는 항상 소득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블커와 윈터(Volker & Winter, 1989)는 여성가구주 가계와 남성가구주 가계의 식품비 지출에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는데 2 집단 모두 가족수와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1993년 분기별 4인 도시근로자 1,324가구의 총소비, 식품비와 외식비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가계조사는 매년 전국의 24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화 및 확률 비례 계통 추출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며 가계부 가장방식으로 1년 동안의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한다. 외식소비 패턴 분석과 관련된 4인 도시근로자 가계의 20분위 소비계층별 소득과 소비는 <표 1>과 같다. 외식비는 가족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족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4인 가구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4인가구는 도시근로자가구의 1/3이상을 차지하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38세로서 대부분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도시근로자 가계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타 가족수의 외식비는 4인 가계의 분석에서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4인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소득과 소비
(단위: 원)

계 층	소 득	총소비	식품비	외식비
1	406,768	325,588	144,275	16,977
2	688,913	437,683	181,791	32,793
3	805,200	503,053	199,690	38,212
4	890,082	557,848	211,356	39,644
5	960,436	603,657	230,080	47,676
6	1,029,577	650,017	237,256	53,008
7	1,096,819	694,509	249,695	59,321
8	1,162,490	738,319	258,334	60,651
9	1,229,308	782,679	274,104	65,445
10	1,295,417	828,888	283,201	71,624
11	1,367,437	875,894	296,320	77,810
12	1,446,174	926,532	302,915	77,728
13	1,531,254	986,137	313,788	84,053
14	1,629,969	1,050,499	324,725	94,040
15	1,748,278	1,126,407	344,607	97,393
16	1,871,019	1,217,442	357,135	103,267
17	2,037,324	1,331,425	374,123	103,532
18	2,286,884	1,496,644	399,448	107,775
19	2,631,790	1,792,424	441,518	136,049
20	3,911,974	3,267,202	484,304	152,163
평균	1,500,858	1,010,176	295,490	75,981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고에서는 상대적 빈곤계층과 사회적 빈곤의 하한 빈곤계층을 다른 생활수준으로 간주하고 외식비의 2단계 빈곤선을 설정하고자 한다.¹⁾ 빈곤선 설정을 위하여 먼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전가구를 서열화시킨 후, 20분위로 계층을 나누어 하위 5%(1/20분위), 10%(2/20분위), 100%(20/20분위) 가계의 평균 외식소비액수를 산출한다. 이 액수를 토대로 20분위 계층별 엔젤계수와 외식비를 제외한 엔젤계수의 비교와 소득탄력성의 산출을 통하여 외식비의 필수재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계층을 독립변수로 삼고 계층별 외식비의 총지출액, 총소비에 대한 비율, 총식품비에 대한 비

율, 한계소비성향 및 소득탄력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계층상승에 따른 외식비의 지출을 살펴 보고 외식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을 빈곤경제선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소비합수법, 알렌보울리법, 엔젤계수법, 유사상대빈곤법 및 순수상대빈곤법으로 산출된 빈곤선과 산출된 빈곤경제선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외식비의 빈곤선을 설정하여 외식비의 마켓바스켓 구성의 기준을 삼고자 한다.

소비합수와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소득탄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대수형 소비합수를 추정하였다.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고 그래프를 그렸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식비의 필수재 여부

외식비를 최저식품비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식비의 필수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층별 엔젤계수와 변형엔젤계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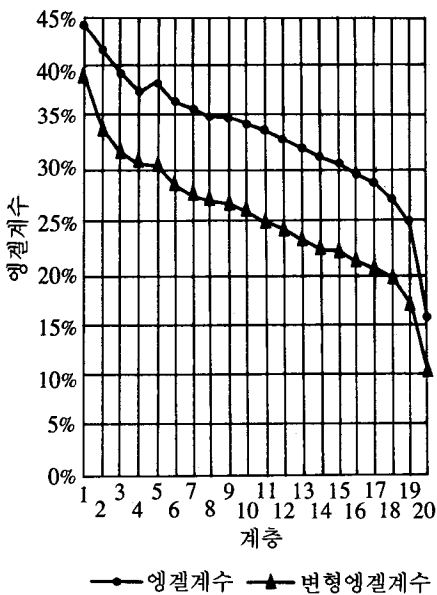
1) 계층별 엔젤계수와 변형엔젤계수의 비교

만약 외식비가 여타 식품비와 마찬가지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진다면 엔젤계수와 외식비를 제외시킨 식품비의 엔젤계수(변형엔젤계수)의 그래프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며 계층 간의 엔젤계수의 격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20분위 계층별 엔젤계수와 변형엔젤계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만약 외식비가 여타 식품비와 다른 성격을 띠는다면 계층별 변형엔젤계수의 형태는 엔젤계수와 상이할 것이다.

계층별 4인 도시근로자 20분위계층의 각 분위별 평균엔젤계수와 변형 엔젤계수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형엔젤계수가 엔젤계수보다 전체적으로 약간씩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형태 상으로는 비

1) 2단계 빈곤선 설정의 이론적 근거는 박명희, 류정순(1995)에 논의되어 있다.

순하게 나타났으며 계층의 상승에 따라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엔겔계수는 평균 29.25%, 1분위 평균 44.31%, 20분위 평균 14.83%로 나타나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격차가 29.48%에 이르고 있다. 변형엔겔계수의 평균값 21.73%는 엔겔계수의 평균 29.25보다 많이 줄었으며 최상위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격차는 28.93%로서 엔겔계수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엔겔계수의 평균값과 1분위의 격차 또한 15.06%인데 비하여 변형엔겔계수의 평균값과 1분위의 격차는 17.38%로서 약간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변형엔겔계수와 엔겔계수의 계층 간의 격차의 폭은 좀 더 커졌으나 그래프는 비슷한 형태를 보여 외식비가 여타 식품비와 마찬가지로 필수재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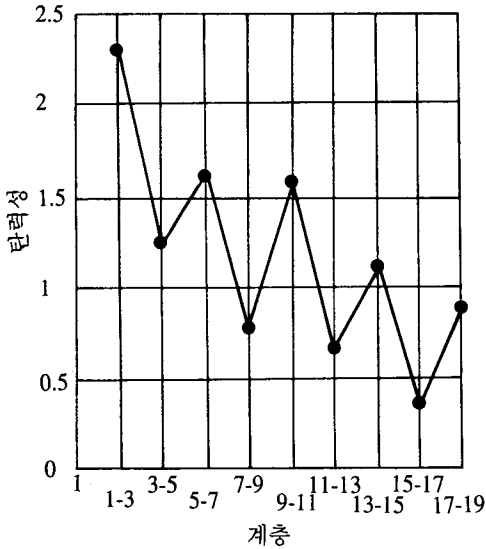
〈그림 1〉 엔겔계수와 변형엔겔계수의 비교

2. 계층별 소득탄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탄력성의 추정은 2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양대수형 소비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이며 둘째 방법은 각 계층별로 계층이 한단위 상승할 때 소득의 상승율에 대한 외식비의 상승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양대수형 소

비함수로 추정된 1993년 4인 도시근로자 가계의 외식비의 소비함수는 $\ln Y = 0.75783 \ln X + 0.075542 (R^2 = 0.0959, \text{Durbin-Watson 값 } 0.894)$ 로서 소득탄력성은 0.757831로 나타나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치재로 밝혀진 년도가 많았다. 또한 이 방법의 소득탄력성 추정은 전체 가계를 한몫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계층별 소득탄력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층이 한단위 상승할 때 소득의 상승율에 대한 외식비의 상승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층별 평균 소득탄력성을 산출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총소비를 중심으로 계층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외식소비는 각 가계의 기호의 영향이 반영되어 20분위로 계층을 나누었을 때는 한계소비성과 소득탄력성에 있어서 계층의 상승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소득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은 10분위 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출된 10분위 계층별 소득탄력성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1.09205로서 사치재적 성격을 보였다. 외식비의 사치재적 성격은 상류계층보다 오히려 하류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탄력성은 계층상승과 더불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20-3/20분위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15/20-17/20분위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양대수형 소비함수로 추정된 소득탄력성은 정상재였으나 계층별 소득의 증가율에 따른 외식비의 증가율은 사치재적 성격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재로 간주한다. 그러나 재화의 성격 규명에 있어서 단순히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재이고 그렇지 않으면 빈곤선 산출에서 외식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류층에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계층에서 채워지지 않은 음식(외식)에 대한 욕망이 상류층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상류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소비에 대한 비율의 감소현상이 차차 아래 계층으로 확산되는 하향전파효과(downstream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현재 중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외식소비의 사치재적 성격은 소득의 향상에 따라 차차 정상재적 성격으로 전환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림 2〉 계층별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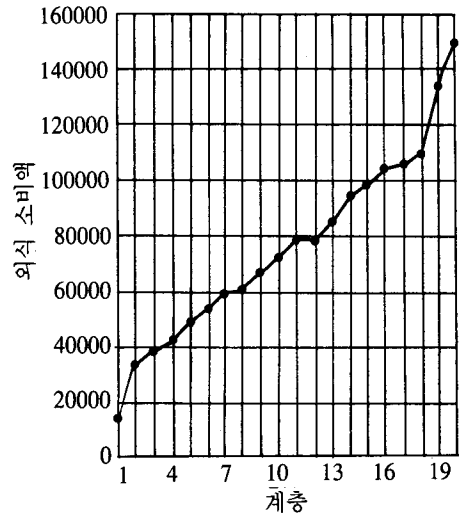
1993년의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외식소비의 사치재적 성격은 어느 특정 시점의 소득과 임금수준에서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차원에서 식사를 통하여 생활의 멋과 여유를 즐기고 새로운 미각적 경험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음식소비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거나 직장인의 점심 등의 식사대용 외식의 회수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식을 포함시켰을 때나 제외시켰을 때 다 같이 앵겔계수가 계층의 상승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하위층에서 탄력성이 높더라도 외식비는 빈곤선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0년대 이후의 안병근을 제외한 다른 연구에서 모두 외식비를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외식비가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3에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실제 소비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계층별 외식소비패턴 분석

1) 계층별 소비액수

외식소비액수는 평균 75,781원으로서 10/20-11/20

분위 사이에 위치하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최상위 계층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0분위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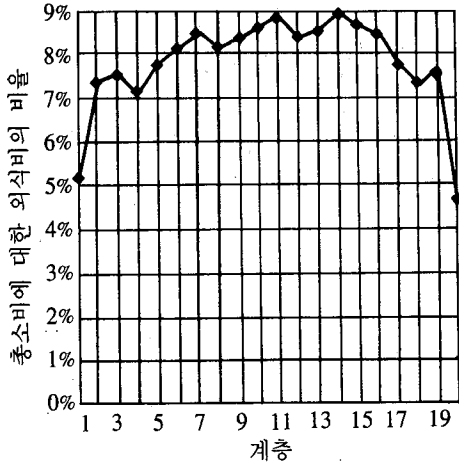


〈그림 3〉 계층별 소비액수

비액수는 16,977원이었는데 2/20분위는 32,793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큰 격차를 보였다. 7/20-8/20분위와 11/20-12/20분위 사이에서 외식소비는 비슷한 값을 보여 이 계층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8/20-19/20분위 사이에서 외식소비는 28,274원이 늘었다. 1/20분위와 2/20분위에서 외식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 지점은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8/20분위와 19/20분위 사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 지점은 생활수준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빈곤경계선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높은 선이다. 그 이외의 지점에서 뚜렷한 경계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계층별 총소비에 대한 구성비율

총소비지출에 대한 외식비의 구성비율은 평균 7.5%이며 계층별 구성비율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0분위에서 5.2%였으며 11/20분위까지는 계층상승과 더불어 차차 증가하다가 11/20-14/20분위 사이에서는 불규칙하며 그 후 부터는 차차 감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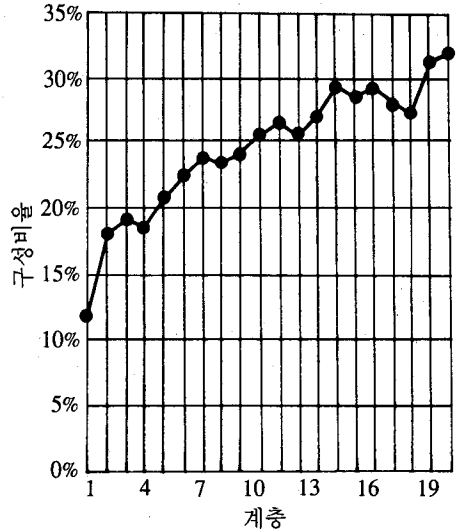


〈그림 4〉 계층별 총소비에 대한 구성비율

20/20분위에서는 4.7%가 되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은 14/20분위로서 9%였다. 이와 같이 평균이하의 계층에서는 계층상승에 따라 총소비에 대한 외식비의 구성비율이 뚜렷한 증가 패턴을 보였으며 상위계층에서는 앵겔의 제1법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상위계층에서는 외식비가 다른 식품비와 마찬가지로 필수재임을 확실하게 나타냈으나 중하위 계층에서는 다른 식품들과 다른 소비 패턴을 보였다. 총소비에 대한 구성비율을 토대로 빈곤경계선을 찾아본다면 1/20분위와 2/20분위사이에서 무려 2.5%의 격차를 보여 뚜렷한 경계선이 나타났다. 또한 14/20분위부터 총소비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지점이 생활수준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 또한 빈곤경계선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높다.

3) 계층별 총식품비에 대한 구성비율

총식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구성비율의 평균은 25.7%로서 10/20-11/20분위에 위치한다. 각 분위의 총식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구성비율은 〈그림 5〉에 나타남과 같이 1/ 1/20분위 11.8%, 7/20분위 23.8%, 14/20분위 29.0%, 20분위 31.4%로서 대체로 계층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16/20-18/20



〈그림 5〉 계층별 총식품비에 대한 구성 비율

분위 사이에서는 약간씩 감소했다. 2분위 값은 18.0%로서 1/2-2/20사이에서 계층이 한단위 상승할 때 무려 6.2%나 늘어나 증가율이 50%를 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18/20-19/20분위 사이에서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는데, 총소비에 대한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식품비에 대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상위층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식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구성비율을 토대로 빈곤 경계선을 찾아보면 1/20-2/20분위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계층 사이에서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경계선을 찾기가 어려웠다.

4) 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전체 4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외식비의 소득에 대한 소비함수는 $Y = 0.036307X + 20,121$ (R^2 값 0.1241, Durbin-Watson 값 0.973, F값 0.1241, $p > 0.0001$)로 추정되어 소득이 만원 상승할 때에 외식비는 평균 363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분위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은 평균 0.0836으로서 소득이 만원 늘어날 때 836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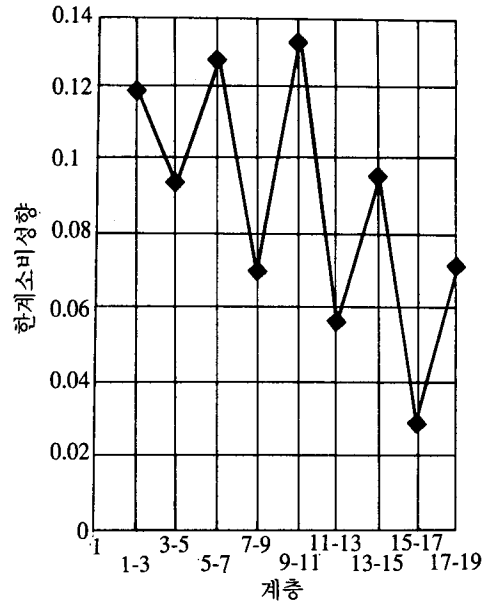
식에서 추정된 값보다 훨씬 높았다. 김정숙(1992)은 1970년에서 1989년 동안의 외식비의 시계열적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함수를 $Y = 0.048X - 488,050$ 으로 추정하여 본 연구 결과와 한계소비성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수값 25,927원은 김정숙의 연구에서 추정된 -488,050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외식비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수값은 20,127원으로서 소득이 없을 때의 지출액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외식비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1분위의 지출액인 16,976원보다 높으며 2분위의 지출액인 32,794보다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1분위의 지출이 다른 분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데 일부 원인이 있으며 고소득층의 높은 지출이 함수식에 반영된 데 기인하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알렌-보울리 방식의 빈곤선 산출에는 절편값이 0보다 적은 품목을 사치재로 간주하는데 외식비는 김정숙의 연구에서는 사치재로 나타났으나 본연구의 결과는 양의 값을 보여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다. 따라서 알렌-보울리 방식으로는 외식비의 빈곤선을 산출할 수 없었다.

10분위 계층별로 계층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소득액수의 증가분에 대한 외식비의 지출 증가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계소비성향을 산출한 결과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층상승에 따라 차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계층은 9/20-11/20분위였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15/20-17/20분위였다.

4. 외식비의 빈곤선 설정

월평균 외식소비액수, 총소비에 대한 구성비율, 총식품비에 대한 구성비율은 공통적으로 1/20-2/20분위 사이에서 급격히 변화하며 소득탄력성 또한 이 분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비함수의 절편 20,121원이 1/20-2/20분위 사이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1/20 - 2/20분위 사이에서 빈곤경계선이 나타났으나 빈곤선은 1/20분위의 외식소비액인 16,976원이 적합할 것인지, 2/20분위의 외식소비액수와 1/20분위값



<그림 6> 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의 평균인 24,870원이 적합할 것인지, 소비함수의 절편값 20,121원이 적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20분위값인 32,794원이 적합할 것인지는 입증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최저외식비를 사회적 빈곤의 하한선으로 해석하고 1/20분위값(평균 하위 2.5%)인 16,976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지표들의 분석결과 상대적 빈곤 경계선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점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사상대빈곤 방식을 적용하여 외식비의 평균지출액 75,781원의 8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면 60,625원이 된다. 이 값은 7/20-8/20분위 사이에 위치하며 이 값에 가장 근사한 분위는 8/20분위로서 외식비는 60,651원이다. 8/20분위의 평균값은 순수상대빈곤 방식의 하위 37.5%선이다. 그러므로 상대빈곤선은 8/20분위의 외식소비액인 60,651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VI. 결 론

앵겔계수와 변형앵겔계수의비교 및 소득탄력성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외식비는 빈곤선 산

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식비의 2단계 빈곤선 설정을 위하여 계층별 외식소비패턴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외식비와 총식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은 계층 상승에 따라 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총소비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이 중류층까지는 증가하나 14/20분위부터 줄어 들어 역U곡선의 형태를 보였다.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은 계층상승과 더불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4인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 외식소비의 사회적 빈곤의 하한선은 16,977원으로 상대적 빈곤선은 60,651원으로 설정하였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1989),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6권 4호
- 2)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국은경제연구소, 33, 90
- 3) 김미향과 한재숙(1988), 식품소비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6권 1호
- 4) 김정숙(1992),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제 2호
- 5) 박명희, 류정순(1995), 빈곤가계의 복지지원을 위한 빈곤선 설정의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5호
- 6) 배연수, 한재숙, 김정숙(1990), 가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의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87-101
- 7) 안병근(1991), 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과 그 정책적 함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8)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제 8호, 12월
- 9) 양세정(1992), 미일독과 비교해본 한국가구의 소비지출행태, 국민경제리뷰, 8월, 국은경제연구소
- 10)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 11) 장현준(1986),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개발연구원
-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4), 1994년 임금지침
- 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4)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최저생계비 계속조사 연구
- 15) 통계청(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 16) 통계청(1995), 1994년 2/4분기 도시가계수지동향
- 17) Allen & Bowley(19(1942), Expenditure patterns of families of different types, Studies of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190-20, Edited by Lange, McIntyre and Yntema, Chicago: Un Univ. of Chicago Press
- 18) Cutler D. M. and Katz L.,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disadvantag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1991, 1-74
- 19) Douglas, E.(1980),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Proceeding of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41-46
- 20) Fuchs, V.(1967), Redefining poverty and redistributing income, The public interest
- 21) Ghez, G.R. & Becker, G.S.(1965), The allocation of time and goods over the life cycl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7-67
- 22) Goddard, D.(1983), An analysis of canadian aggregate demand for food at home and away from home,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November
- 23) Gould, J.P. & Ferguson, C.E.(1980), Microeconomic theory, 4th ed., Richard D. Irwin, Inc.
- 24) Houthakker, H. S.(1957),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Engels law, Econometrica, Vol. 125, July 1957
- 25) Miller, S. M. and Roby, P.(1970), Poverty: changing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concept as poverty, ed. by Peter Townsend, Heinmann, London, 124

- 26) Mok, Park & Chern(1995),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Asian-American household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household production theory, Proceeding of the 1st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12-24
- 27) Townsend, P.(1974), Poverty as relative deprivation: reasons and styles of living, Wedderburn, D. (ed.), Inequality and Class structure, Cambridge
- 28) Volker, C.B. & Winter, M(1989), Primary household production food, food expenditures, and reported adequacy of foo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1, 32-46